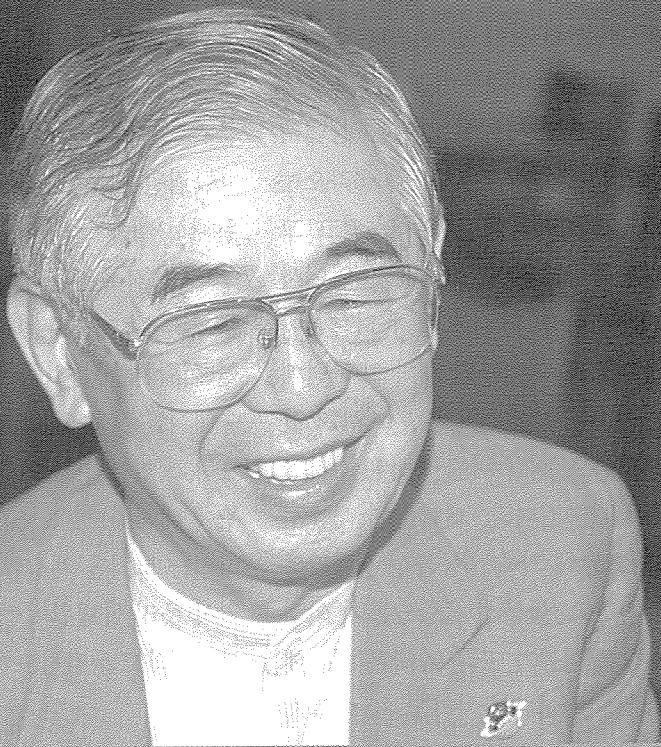


小松昭夫(코마츠아키오)

– 동북아 평화를 일구는 일본 사마네현의 혁신 사회사업가



“백년의 원한을 발전의 에너지로 바꾸는 희망의 빛을 찾는다”

- 일시 : 2010년 7월 20일 아침
- 대담 : 조성우(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사무총장)
- 장소 : 퀄리데이 인 서울 가든 호텔
- 통역 : 김미정(코마츠전기산업(주) 마케팅본부장)
- 사진 : 박성일(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과장)



북한 식량지원금 500만엔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1998년 7월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소 501마리를 몰고 방북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직후, 그 해 7월 일본의 사업가 코마츠아키오(小松昭夫)씨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00만엔을 쾌척 한 일이 있었음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시 코마츠 씨는 “그 시기에 발표된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단을 염려하여, 일본인 중 누군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대북지원 라인인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보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대한적십자사는 그 감사의 뜻으로, 지난 7월 19일 코마츠 씨가 개최한 행사(코마츠전기산업(주) 서울지사 개소식과 이 회사 주력상품인 스피드도어 몬반(門番) G-시리즈 발표회, 또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인간자연과학연구소의 「치수의 위인」 3권 출판 기념식)의 한식순을 빌어 명예유공장을 그에게 증정했다. 그 전달은 코마츠 선생과 친분이 있는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총재(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폭넓게 펼치고 있는 평화사업의 동기와 취지 등을 물었다.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총재(우)로부터 명예유공장을 전달받고 있다. 2010년 7월



한국 독립기념관 방문 1997년 6월

그의 활동은 냉전 이후 약 20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 러시아 등에 이르고 있다. 우선 한국에 대해서는, 1992년 한국기업에 코마츠전기산업(주)의 히트 상품인 스피드도어 제조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이래, 1997년에는 방한 시찰단을 구성하여 한국독립기념관을 일본으로서는 처음 방

문하여 현화하고 100만엔을 기증했다. 2005년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을 방문했고, 2007년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식전에 참가하고, 명성황후의 생가와 그 묘소인 흥릉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밖에 한국의 몇몇 대학에서의 강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위문, 독도 문제 및 동해 표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미국에 2005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기념일에 맞춰 아리조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현화하고 기부하였으며, 2007년에는 중국 남경 대학살기념관과 해남도 강제노동 철거지를 방문하여 스러져간 영혼들을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이들의 위령비에 현화한 후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희생자 위령비에도 현화하는 등 폭넓은 평화 활동을 펼쳐왔다.



중국인민항일전쟁 기념관 방문 2001년 5월

또 그는 이채롭게도 공자, 맹자의 동상과 자기 고향의 “물의 위인”的 동상을 중국과 일본에 건립하고, 일중영 3개 국어로 「논어」와 일중영한 4개 국어로 인류의 긴급한 어젠다인 평화·환경·건강에 초점을 둔 「중국고전명언록」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국제 문화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어판 만화『치수의 위인』3권을 출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1944년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 태어나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의 한 기업에서 농업기계개발 엔지니어로서 8년간 근무한 후 회사가 도산하자, 자택의 창고에서 오늘의 코마츠전기산업(주)을 창업하여 크게 성공한 후, 90년대 초 냉전 종식 무렵부터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평화 사업을 펼쳐왔다. 일본인 중 와다하루끼(和田春樹) 등 적극적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 학자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엔지니어 출신의 현직 기업 경영자로서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코마츠 선생은 다소 덜 알려진 경우이다.

일견 그는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소프트 파워 외교를 펼치는 민간 외교관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한반도를 보는 시각은 남다른 데가 있다. 핵 3대국(미중러)에 둘러싸인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연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래를 향한 공동의 사

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일본이 과거 한반도 주민에 가한 잘못과 과오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의 지난 20년간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자기의 철학에 따라 동아시아 ‘백년의 원한’을 발전의 에너지로 바꾸는 희망의 빛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는 질서 재편기에 있다. 각국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민간 액터(Actor)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코마츠아키오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를 좀더 알아보기로 한다.



코마츠전기산업(주) 개소식 및 〈치수의 위인〉 출판기념회 2010년 7월 19일

동 내용들을 통해 짐작해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의 근저에 있는 생각이랄까, 또는 그 뜻을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코마츠: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매우 존경받는 니노미아손토구(二宮尊徳)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농촌에서 사업을 일으킨 분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찰을 통해 큰 실적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규범을 만든 분입니다. 또 이시다바이가(石田梅

岩)라는 분도 있는데, 이 분은 인간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상인의 도를 확립한 분입니다. 저는 의식주가 충분한 일본 사회 속에서, 이웃국가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는 전후책임이 부여된 세대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 또 사업을 일으키는 의미, 또 국가가 존립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열심히 고찰하는 속에서 앞의 두 분의 생각에 과학과 기술을 더하고자 노력했고, 또 생명의 본질과 인류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지난 35년에 걸쳐 회사경영과 (재)인간자연과학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제 나름의 이론이랄까 그런 것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 실천의 밑바탕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 지난 92년에 한국기업 (주)동우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적이 있으신데, 당시 그것은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인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회

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코마츠: 당시는 저희 회사가 스피드자동도어 ‘몬반’으로 급성장할 때 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에서 경제적 기반이 가장 약하다고 하는 시마네현에 있었지만, 당시 저희는 크게 성장했어요. 이 무렵에 (주)동우와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성공에 힘입어 뉴비지니스협의회의 최고상인 ‘뉴비지니스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주식상장이 가까워진 기업의 경영자로서 전국으로부터 주목받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1992년 1월 미야자와 일본 수상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역사인식 문제가 거론되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기술이 전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일본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일본 최고의 대상을 받은 우리 회사 기술을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미래에 희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1992년 2월 수상기념 행사장에서



한국기업에 무상 기술 제공한 것이 당시 언론에 보도됨. 위는 수상 장면, 아래는 관련 기사

(주)동우에 기술·설계도면의 무상 양도 전달식을 행하여 신문 지상에 크게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단지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만 세상 소식을 접하는 경영인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까지도

포착하는 안목을 가진 경영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달리 기업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책무랄까 역사에의 기여랄까 하는 것을 일찍부터 마음 속에 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코마츠: 그 답으로서 제 정신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제 좌우명은 ‘중용’(中庸)입니다. 중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용(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논리 또는 학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회에 보탬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중용’이라는 원리를 더하지 않으면 실용적인 가치로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인류 중에서도 일본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국적이 바뀌는 일도 많이 있지만, 본인이 일본 인으로서 혹은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중국, 북한 등 일본의 이웃 국가들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각기 자신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려내고 활용해서 가져가야 하는가? 거기에 차안을 두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말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아, 나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라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나의 문제'라고 보고, 본인의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진행해 갈 때 본인이 더 가치 있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의 환경과 관련하여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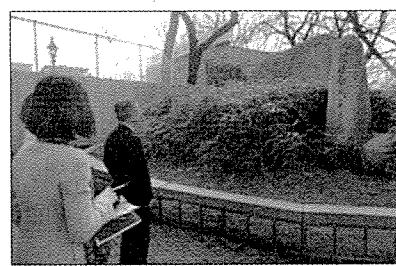
면, 가해자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인데, 그러면 '내가 가해자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살려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당시 (주)동우에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그것에 대해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 인생의 좌우명을 중용이라 하셨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중용이 지침이 되나요?

코마츠: 그렇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출시할 때, 이해관계자(스테이크홀더)를 상정하고 귀를 기울여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놀라움과 환영의 소리가 널리 들려오면 상품에 품격이 갖추어지며, 또 라이벌 상품도 생겨나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그리하여 브랜드가

확립되면, 그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 또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용은 안내자가 되지요.

조: 중용(中庸)이라는 지혜가 일본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상품을 개발할 때의 태도와 같이 서로 매우 이질적인 것들을 조합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태도로 작용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들립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일본의 영웅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중근 의사 희호 “인류사회대표중임”이 새겨진 비석 앞의 코마츠 씨

코마츠: 먼저 인류의 특성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지속의 욕구와 존엄의 욕구를 갖는 특성

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용이하게 잘 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저같은 사람이 가진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안중근 의사 100년 전에 기본적 인권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人類社會 代表重任(인류사회 대표중임)이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서울 남산에 이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 안중근 의사의 다른 글들은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만, 저도 그 글은 유의하지 못했습니다.

코마츠: 이 글의 원본이 2차 대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2009년 2월 22일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류우 코쿠대학(龍谷大學)의 도츠카에초로 오(戸塚悅郎) 교수가 「人類社會 代表重任」이라는 글은 현대사회의 기본인 ‘인권’의 어원(語源)이라는 것을 말

“저는 가해측인 일본인이 그 동안의 역사 과정과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국의 국민들이 우리 일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면, 인류사적 전망을 여는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씀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중근 의사와 관계하여 활동한 것은 서울에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행사가 있었을 때, 일본에 있는 안중근 의사 유묵의 한국전시를 중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난 6월 그 작품을 일본에서 최초 공개한 행사에서 약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지정되어, 독도가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날로 활용되고 있음. 코마츠 선생은 이 날이 되면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대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한다고 함.)

조: 안중근 의사의 그 글이 인권이라는 말의 어원이었다는 얘기는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번에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코마츠 선생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에서의 공동 역할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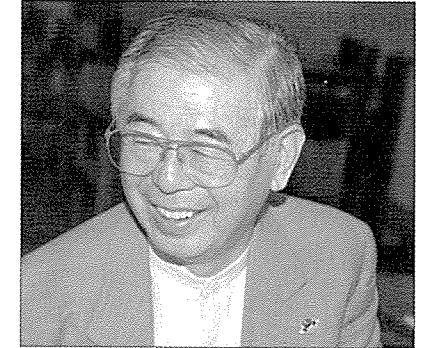
코마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언어, 문자, 쿠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인류사회에 대변혁을 초래하는 요인들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핵확산, 통화의 불안정화, 아이패드·아이폰으로 대표되는 통신인프라의 발달을 배경으로 대변화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중러 3대 핵대국의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는, 세계의 불안정화·유동화·핵확산을 배경으로 군사적 대립이 한층 더해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독도·다케시마 영토문제, 동해·일본해의 호칭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원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정세의 불안정화는 한국과 북한의 대립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미중러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부담의 연쇄반응을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마침 한국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인이 먼저 나서서 재일 한국인과 재일 북한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난 20년 세월 동안 스테이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가해측인 일본인이 그동안의 역사 과정과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국의 국민들이 우리 일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면, 인류사적 전망을 여는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질 않아서 저는 여러 일본 밖의 소중한 분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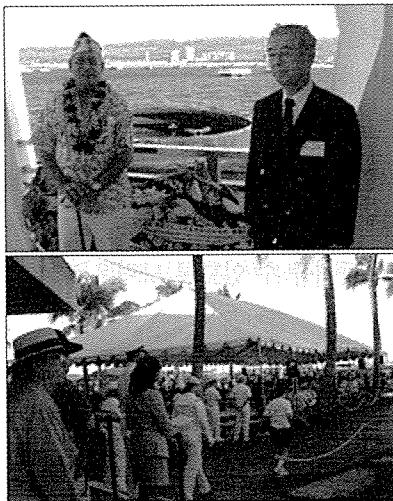
중국 남경 학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국남경전쟁기념관 관계자들을 그동안 가해자 측인 일본인이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웠는데, 주성산(朱成山)관장께서 2005년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저의 활동과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군축문제 고문인 케이트 뉴스(Kate Dewes) 여사를 만나서 공명을 얻은 것은 저로서는 또 다른 기쁨이었고, 그 인연으로 그 분의 남편으로 영국 전 해군사령관이었던 로버트 그린 씨의 『핵억지력 없는 안전 보장』 일본어판을 (재)인간자연과학 연구소가 지원하여 원폭기념일인 다음해 8월 6일에 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에서의 핵폐기를 향한 연설, 최근 반기문 유

엔사무총장과 존 빅터 루스(John Victor Roos) 주일 미국대사의 히로시마평화 기념식에의 첫 참가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오랜 원한을 발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중요한 플레이어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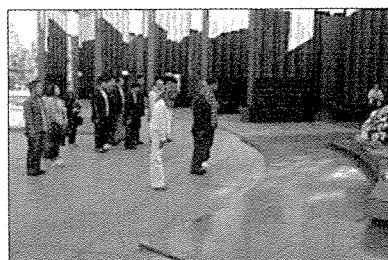
코마츠: 물론 중국도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만,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3개 핵 대국중의 한 나라이며, 유엔 상임이사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역할이 다른 이 3개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한국, 일본, 북한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세계적, 인류사적 레벨에서 구상해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작은 나라라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특색 있는 나라로서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살려,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었던 원한의 대립을 인류발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다시 없는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입구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랜 기간 고생해온 재일한국인과, 재일북한인 그리고 참된 일본의 제건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입니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10명만 모여도 줄탁 동시의 연쇄작용을 불러 일으켜 시대를 움직이는 큰 파워가 될 것입니다.



조: 진주만 공격 기념일(12월 7일)에는 미국의 아리조나기념관에 가서

전쟁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또 동일한 취지로 러시아, 중국, 한국에 방문하여 헌화하는 활동 등을 하셨는데,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의식은 그런 과거의 교전국에 가서 헌화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는 ‘기분이 안 좋다’ 하는 반응이 혹시 없는지요? 또는 그로 인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데 부담감 같은 것은 없는지요?



러시아 제2차대전 위령비에 헌화 2009년 9월

코마츠: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된다거나 하면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는 대립이 생길 때 대립을 반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가져갈 것인가 생각하며, 오히려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로부터 생기는 원한, 그리고 현재

와 미래에 상정되는 대립의 에너지를 자원으로 여기는 것은 격동기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소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영 그 자체가 아닐 까도 생각합니다.

조: 지금 대립과 위기 시의 태도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번에 한국어판으로 출간한 만화『치수의 위인』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공통의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마츠 선생님의 고향인 시마네현의 선조들로서 치수를 위한 시설들이 홍수에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원래의 목표를 추구하여, 결국은 그것을 평생에 걸쳐 성취해 낸다는 것입니다. 위인 중 하나인 스토우 야헤에는 42년간 망치질로 산의 바위를 깎아 강 흐름을 바꾸어 놓던데요. 이는 일본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코마츠 선생께서 고향 선조들의 그러한 강인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분은 아니신가요?

코마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42년이나 산을 깎으면서 살지는 못 합니다(웃음). 그러나, 산은 못 깎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이 힘들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으며 또 폐를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즐거운 추억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곤란을 맞이했을 때야 말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활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인종근 의사 기념관 관장 김호일(왼쪽 두번재), 회양 개념을 만든 센케미치히코 씨(왼쪽 세번재) 등이 일본에서 회합 후 함께 하고 있다.

조: 선생님께서는 오랜 사고와 활동 과정을 통해서 회양(和讓)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이것이 제반 활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코마초: ‘화양’이라는 말은 본래 일본의 전통사상으로부터 화(和)와 양(讓)을 조합하여 센케미치히코(千家達彦)라는 분이 만드신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중국의 중핵 이념인 ‘화해’(和諧), 그리고 한국의 조영식(趙永植) 경희대학 학원장이 제창한 ‘오토피아’(Oughtopia)와 나란히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미국 하버드대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가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제 나름대로 회양(和讓)의 의미를 재정의하여, 센케미치히코의 허가를 얻어 제 이론의 핵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양이란 세가지 소프트 파워(감정을 가미한 지혜, 사명감, 회화력)와 두 가지 하드 파워(집단조직력, 도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을 전체의 문맥에서 통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코마초: 나라 국(國)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인류는 토지 위에 영역을 정하고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생명과 존엄을 지속시키기 위한 욕구로부터 분업을 편성하여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혁신에 의하여 사회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신뢰가 상실되어 내부 대립으로 인해 국가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대립을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의화(化)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전 안중근 의사의 염원이었던 한중일 세 지역이 각각 독립되어 특색을 살려 힘을 합한다는 구상은, 오늘날 핵확산의 세계정세를 생각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립으로부터 공생의 문화”로의 이행은 동해·일본해를 마주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류사의 중심에서 지금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인연이 있는

우리들의 “견식과 지혜와 용기”가 시험되고 있습니다.

조: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공동 역할을 생각하셨던 것 이군요.

코마초: 네, 이상 저의 생각과 활동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대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감해 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조: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활동에서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짚었